안녕하세요.
오르비 Books T.O.P 수학영역의 저자 귓방망이(신희철) 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분석형태의 글을 쓰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분석이란, 수험생 스스로가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늦은 밤 이렇게 글을 써서 배포합니다.

이번 시험, 잘보신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늦은 밤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겁니다.
문항에 대한 분석 및 피드백할 수 있는 기출문제를 **시험지 형식**으로 배포합니다.
(*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시, 삭제될 수 있음)

2014 6월 평가원 수학 A형은
그동안 잘등장하지 않았던 유형의 문항과 표현을 생소하게 바꿔서 출제하여 체감 난이도를 높인 부분이 많습니다.

수학영역 - A형

1~3번 생략.
4번.
보통은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 "0의 개수", "1의 개수"로 물었었는데, 이번엔 "행의 모든 성분의 합이 3" 이라는 말로 바꿔서 물었네요.
그렇다고 어렵진 않았지만, 단지 이런 문제는 변의 개수를 세어서 곱하기 2를 하는 것으로 외워버린 하위권 수험생들은 적잖이 당황했었던 문제일 듯 합니다.

5~9번 생략
10번.
최근 A형에서 왜 이것이 안나올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9평 및 수능에 변형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항은 꼭 공부하시길 바래요.
추천문항 : 2009 수능 가형 6번, 2009 6월 평가원 가형 19번, 2010 6월 평가원 가형 23번.

11, 12생략.

13~14번.
13번은 무난했으나, 14번은 새롭습니다.
신기한건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 문과분들이 고등수학을 생각보다 착실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 문제를 풀자마자 **2010학년도 6월 평가원 나형 27번 문항, 2010학년도 9월 평가원 나형 17번 문항**이 떠올랐습니다. 참고하여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15번.
올해는 지수와 로그 실생활문항이 쭉 4점으로 나올 것 같네요.

16번.
그림이 없었다면 정답률이 좀 더 낮았을 것 같네요.
추천 문항 : **2013 수능 27번. 2011 사관학교 인문 17번. 2007 9월 평가원 가형 16번. 2012년 3월 교육청 나형 30번**

17번.
쉽게 나왔죠..? 과거에 가형에 3점으로 출제되던 접선의 방정식 문항이 더 어려웠습니다.
추천 문항 : 2010 6월 평가원 가형 4번, 2008 6월 평가원 가형 20번, 2011 9월 평가원 가형 21번.

18번.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항을 틀리셨다면, 삼각함수 및 중학교에 나오는 삼각형, 닮음에 대하여 공부하세요.
추천 문항 : 2011 수능 가형 10번, 2009 9월 평가원 가형 17번, 2012 6월 평가원 나형 27번.

19번.
작년 수능과 매우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꿔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이런 유형이 약하신 분들은
계차수열의 공식을 증명하여 보시고, 수학1에 점화식 부분을 공부하세요.
공식들을 외우진 말고, 그 공식들을 유도하는 과정을 캐치하세요.

20번.
3점이 어울리는 문항인데, log값을 어림짐작 (3보다 크고 4보다는 작겠구나.) 하는 풀이때문에 4점을 준 것 같네요.

21번.
제가 과외하는 학생도 그렇고,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a값이 양수, 음수일 경우의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줄 아는지 물어본 문항입니다.
마치 이차함수 $y=ax^2+bx+c$가 $a>0$, $a<0$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것 처럼요.
추천문항. 2010수능 가형 24번.

22~25생략.
26번.
도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아느냐? 를 물어본 것인데, 하위권 학생들은 왜 f'(2)=2인지 모릅니다.
추천문항 : 2008 9월 평가원 가형 22번. 2013 6월 평가원 27번.

27번.
이게 4점이라니..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기본문항.

28번.
보통은 함수의 주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번엔 수열에 주기적인 규칙을 주었네요.
천천히 나열하여서 묶어보면 그리 어렵진 않은 문제였고요.

29번.
이렇게 60 제곱, 100 제곱, 2014 제곱 등의 경우에는 십중팔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첫 번째. $A^k=E$ 혹은 $A^k=-E$를 활용.
두 번째. A, A^2, A^3, …를 이용하여 규칙찾기.
29번은 $A-E$, $(A-E)^2$를 나열하여 $A^3=E$임을 이용해서 $(A-E)^{60}$을 추론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추천문항은 첨부파일 참고)

30번.
눈치 채셨나요? 바로 2009 9월 평가원 나형 9번 문항의 소재를 가져와서 2009 수능 나형 27번의 표현을 생소하게 바꾼 것입니다. 답을 내는 건 어렵지 않았으나, (나) 조건을 해석하지 못해 틀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추천 문항 : 2009 9월 평가원 나형 9번, 2009 수능 나형 27번

총평 :
작년, 제작년과 마찬가지로 중, 하위권 학생을 상당히 많이 배려한 듯 보입니다.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도 챙겨가려는 느낌이 들었네요. 1등급 컷은 93점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평가원은 기존의 기출문항에서 **숫자, 표현을 생소하게 바꾸고, 수열에 사용된 조건을 미분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난이도를 증가**시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집(기출 문제면 좋습니다.)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표현이 덜 깔끔한 문제 및 계산이 복잡한 문제를 골라내지 않고 푸세요.** 평상시에 이런 계산훈련을 해둬야 시험장에서 계산 때문에 오는 멘붕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BS에 괜찮은 문제가 많습니다. 기출문제와 EBS 풀이를 병행 할 것을 권합니다.
EBS 추천 문항도 제작중입니다.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늦어지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로 배포하겠습니다.

9월, 넘어서 수능까지 필승하시길 바랍니다..^^